

신남방 보폭 넓히는 롯데제과, 印尼·越 이어 미얀마 공략

미얀마 1위 제과사 메이슨 인수
주식 80%, 인수금액 770억원
동남아 요충지로 구매력 신장



지난 30일(현지시간) 미얀마에서 진행된 인수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제과가 미얀마에서 새로운 제과사업 개시를 공식화했다.

롯데제과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얀마 제과회사 메이슨 인수식을 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수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수식은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가졌다.

행사에는 이영호 식품BU장,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 등 롯데그룹 관계자와 우표 민 땡(U Phyo Min Thein) 양곤 주지

사 및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 등 주요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롯데제과의 메이슨사 인수는 이 회사의 주식 8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

졌다. 인수금액은 한화로 약 770억원이다.

‘메이슨’은 비스킷, 파이(케이크), 양산 빵 등을 생산하는 미얀마 1위의 제과기업으로 1996년 설립됐으며 3개의 공장 및 영업 지점 12개, 물류센터 10개를 운영하며 미얀마 전역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

‘메이슨’이 위치한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동남아의 요충지이면서 매년 7%가 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경제 발전에 따른 구매력 신장, 5200만여명의 넓은 소비시장 등을 고려할 때 식품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최근 동남아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 ‘신남방정책’을 펼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식품, 화학,

건설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에서 4조원을 투입한 나프타 분해시설(NCC)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자산개발은 베트남에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호치민시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 및 주거 시설 등으로 구성된 ‘에코 스마트시티’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미얀마에는 2013년부터 롯데GRS에서 롯데리아 매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롯데칠성음료가 미얀마 음료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롯데제과의 미얀마 ‘메이슨’ 인수를 시작으로 올해도 적극적인 ‘신남방정책’을 펼쳐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경동나비엔 “체험형 매장 확대… 유통 다각화”

업계 최초 일렉트로마트 입점
이마트 은평점·스타필드 하남점



일렉트로마트에 입점한 경동나비엔 매장.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업계 최초로 가전 전문 매장인 일렉트로마트에 입점했다.

이를 통해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B2C 사업을 강화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마트 은평점과 스타필드 하남점에 있는 일렉트로마트에서 보일러와 온수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마트 은평점에는 주요 제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동나비엔의 다양한 기술력까지 살펴볼 수 있는 토탈샵으로 꾸몄다. 또 젊은층이 많이 찾는 하남 스타필드는 복합문화공간 컨셉에 맞게 사방이 트인 아일랜드형 매장으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형 매장’을 표방하는 일렉트로마트의 컨셉에 맞게 경동나비엔도 매장 내 체험존을 마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자사의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경동나비엔 김시환 마케팅본부장은 “보일러는 교체 주기가 길고 관여도가 낮은 제품적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접 보일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면서 “매장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존에 선 원격제어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체험할 수 있고, 온수매트존에

서는 매트와 좌우 온도를 1도 단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분리난방 기능도 체험할 수 있는 등 경동나비엔의 친환경 고 효율콘덴싱보일러의 장점을 소비자들 사이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동나비엔은 대리점, 설비업자, 건설사 등 B2B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보일러 업계의 일반적인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B2C 소비자 접점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렉트로마트 입점과 같이 다양한 제품이 전시될 전문 매장을 통해 교체 수요를 공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변화하는 기업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렉트로마트 하남점에선 설 연휴를 맞아 2월1일부터 10일까지 나비엔 팝업매장도 별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26년 정수기기술력 집약… 프리미엄시장 정조준

청호나이스 ‘프리미엄 RO 워터’
142개 유해물질 제거 성능 입증

청호나이스는 ‘프리미엄 RO 워터’ 정수기(사진)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미엄 RO 워터’는 청호나이스의 26년 정수 기술력을 총 집약한 제품으로 국내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수도연구원을 통해 142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입증받았고, 청호나이스만의 7단계 정수 시스템을 갖췄다.

카운트탑형과 스탠드형으로 출시되는 제품은 정수, 냉수, 온수(60℃~85℃), 미온수(39℃~46℃)가 가능하고, 특히 스탠드형은 얼음까지 추출할 수 있다.

‘프리미엄 RO 워터’는 모두 7단계의 정수시스템을 거쳐며 하나의 물질을 두



번씩 거르는 여과 기술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물 속 유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특히 RO 멤브레인 필터 후단에 적용된 PURE 필터는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도 있는 미세한 중금속과 유해한 이온물질을 한번 더 제거해 가장 완벽한 물을 제공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UV 살균 기능을 더해 취수 시 필터를 통과한 정수를 살균해 안정성도 강화했다.

‘프리미엄 RO 워터’는 또 정수 탱크, 취수구 등 물이 닿는 부품에 환경호르몬(비스페놀-A)과 중금속 19종(유럽연구 안전기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끝난 안전한 재질을 사용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대에 저수조를 깨끗이 비우고 매일 신선한 물로 채우는 ACS(Auto Cleaning System) 스마트세정 기술을 적용해 고여있는 물이 아닌 신선한 물을 수시로 제공한다. 제품은 일시불 전용으로 카운터탑형은 264만원, 스탠드형(얼음기능 포함)은 374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한은행-신세계면세점 “쇼핑·환전 원스톱으로”

공동마케팅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신한은행 이승렬 외환사업본부장(오른쪽)과 신세계면세점 만성원 상무가 3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세계면세점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제1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을 비롯해 명동, 부산 센텀시티 등 총 6개 오프라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은행 앱으로 이동하거나 추가로 회원 가입하는 절차 없이 손쉽게 환전 가능한 ‘누구나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외화예금 등의 상품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2월 말일까지 신세계면세점 온

라인 채널을 통해 ‘누구나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신세계면세점 적립금 3000포인트를, 선착순 5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보-기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75억 특별 보증지원

지원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적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성장동력 기업, 수출중소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유망창업기업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중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이 3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304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협약보증’으로 총 6075억원의 보증을 지원

한다. 또 신보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4%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한다.

/김희주 기자 hj89@

페덱스 “포춘 선정, 존경받는 기업 10위”

페덱스(FedEx)는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위에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The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보고서에 따르면 페덱스는 종합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제

무 성과 및 기업 평판과 관련된 아홉 가지 항목을 측정해 선정한다.

페덱스 익스프레스亞太지역 회장 카렌 레딩턴(Karen Reddington)은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도 한 번 10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성과로亞太지역의 모든 구성원 덕

분에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순위는 페덱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페덱스는 강력한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이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이 페덱스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페덱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전체 순위는 포춘 2월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